

## [ 종합·해설 ]

## 당 대표 丁 우세…秋·鄭 약진

&lt;세균&gt;

&lt;미애&gt;

&lt;대철&gt;

통합민주당의 7·6 전당대회 경선에는 정세균 후보의 우세 속에 추미애 후보와 정대철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주격하는 양상이다. 최고위원 티켓 5장을 놓고는 송영길, 박주선 후보가 앞서 가고 있는 가운데 4명의 후보가 나머지 3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 민주당 전대 중간 판세 점검

◇당 대표 경선=각 캠프의 판세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세균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추미애와 정대철 후보가 격차를 좁히고 있는 구도다.

정세균 후보 측은 23일 대의원 1천700여명을 상대로 당대표 후보 지지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세균 후보가 37.1%로 1위를 차지했고 추 후보는 20.8%, 정대철 후보는 14.5%('잘 모르겠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27.6%)를 각각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와 정대철 후보가 단일화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정세균 대세론'을 꾸밀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정세균 후보 측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 조기에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추 후보 측은 대의원 1천4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정세균 후보가 44.4%, 추 후보가 30.8%, 정대철 후보가 24.8%('모르겠다'는 설문항목을 넣지 않음)를 각각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당장 정세균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정대철 후보가 추 후보로 단일화된다면 정세균 후보를 충분히 앞설 수 있다는 얘기다.

추 후보 측은 "국민 여론조사에는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하다"며 "더욱이 후보 단일화만 이뤄진다면 6대 4의 비율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 7·6 전당대회 대표에 출마한 정세균, 추미애, 정대철 후보가 26일 대구에서 열린 경북도당 대의원대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 丁 "1차 투표서 승부 결정" 秋 "鄭과 단일화로 역전"

## 최고위원은 송영길·박주선 1, 2위 다툼 속 혼전 양상

정대철 후보 측은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추 후보를 추월해 2위로 올라섰고 1위의 정세균 후보와도 근소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24, 25일 일 반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대표 선호도 조사 를 한 결과, 추 후보가 25.5%로 1위를 차지했고 정 대철 후보(17.6%)와 정세균 후보(12.6%)가 뒤를 이었다.

◇최고위원 경선=각 캠프의 판세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당내 소장파의 리더인 송영길 후보와 광주·전남 유일의 후보인 박주선 후보가 1, 2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나머지

3자리를 놓고 7명의 후보가 혼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구민주계 지원을 받는 김민석 후보가 다소 앞서면서 3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는 정세균 당 대표후보와 가까운 관료그룹의 김진표, 구 민주당 통합파의 대표격인 정규환, 친노계의 안희정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이어 김근태·정동영계가 지원하는 문학진, 서울의 이상수, 개혁적 소장파 그룹을 대변하는 문병호 후보가 선전하고 있으나 조직력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野性 키우는 최인기

잇단 강경 발언…‘투사형’ 정치행보 주목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이 최근 예전보다 한결 강하고, 선명해진 화법과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과 농림부 장관 출신의 최 의원은 정부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선호하는 의원으로 꼽혀왔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흥분보다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화합하려는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최의원 이름으로 나고 있는 각종 성명서와 보도자료에는 그간의 보여준 ‘화합형’ 행보와는 동

떨어진 ‘투쟁’, ‘저항’, ‘경고’ 등의 강성 단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당장 쇠고기 협상의 관보 개재와 관련, 26일 배포한 긴급 성명서에서 최 의원은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의 위상을 주락시킨 21세기 국치일”이라며 “,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는 오만하고, 미국에게는 굴욕적인 정부라는 짓지가 불은 수치스러운 날”이라고도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원의 화법이 야당 투사형으로 선명해진 것은 지난 2월 통합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시작됐다. 내각 인선 및 청와대 수석 인사, 공기업 민영화와 혁신도시 조성, 지방 정책, 쇠고기 협상 문제 등을 놓고 이명박 정부와 사사건건 각을 세우면서 강성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

최근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의 전화와 면담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나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촛불집회에 참여, 동료 및 후배 의원들을 독려하는가 하면 당내 회의에서도 강경 투쟁 방침을 제시하는 등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투사형의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변 인사들은 “최인기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숨겨진 악성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지방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잡음

## 나주 “민주당 독식 안된다” 무소속 의원들 반발

## 순천·여수, 상대 후보 비방에 줄대기·루머 난무

전남 일부 시군에서 하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장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나주시의회는 애초 지난 25일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끼리 의견이 엇갈려 무기 연기했다. 앞서 지난 24일 최인기 국회의원이 자당 소속 군의원들과 만나 의장단 문제를 조정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는 전체 14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인 무소속 의원들이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장을 독식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횡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과행이 예상된다.

다음달 의장단 선거를 앞둔 순천시의회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잇따르는 등 훈탁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의장선거에 출마자를 밝힌 4명의 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에게 줄을 대거나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와 관련 “의장에 도전한 일부 시의원들이 자신의 사업을 친인척 명의로 편법 운영

하고 있다”며 금품살포나 이권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편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부 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될 경우 집행부의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여수시의회의 경우 의장선거에 나선 모 의원에 대한 비방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

여수경찰은 “지난 2003년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뉴스 공여 사건에 자신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글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홈페이지에 올랐다는 여수시의회 A 모 의원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나주=정철기자 chjung@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장복성 의장〉 〈박사차 의장〉

득했으나 연장자 원칙에 따라 박 의원이 당선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곡성=장필수기자 bungy@

## 목포시의회 의장 장복성

목포시의회 제 8대 의장에 장복성(46·산정3동, 대성동, 남양동) 의원이 당선됐다.

장의원은 26일 전체 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장선거에서 18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한편 부의장에는 3차 투표까지 벌여 강성희(41·연산동, 원산

(동)의원이 당선됐다.

곡성군의회도 이날 제 16회 임시회를 열고 제 5대 후반기 의장에 박사차의원(62·사진), 부의장에 이후정의원(64)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는 재직의원 7명중 6명이 투표에 참가해 박의원과 현의장인 김관준 의원이 각 3표씩 획

## “시의회 의장 후보 공개 토론회 갖자”

## 광주 시민단체들 “담합 등 구태 되풀이 말아야”

광주YMCA와 광주경실련 등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의장 후보자들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 원구성을 확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스스로 지난 활동을 평가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의 전망을 수립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의장 선거에서 청렴하고 지도력을 갖춘 의원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의회가 출범 한 지 17년째, 2년마다 의회 본연

의 역할은 망각한 채 의회직 나눠 먹기, 돈거래, 담합, 밀실야합, 세물이, 출서기와 편가르기, 정당 개입, 계보정치 구태 재현, 후보 비방 등으로 의원간 갈등이 야기되고 급기야 경제와 감시 역할을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현행 원구성 방식이 이처럼 각종 폐단을 초래하고 있어 의장 선출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의회 안팎에서 확인된 만큼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원들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선택하고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개토론회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율기자 dok2000@

도동여행의 헤리티지  
Hainan

무안+하이난(상아)직항  
매주 수, 토 7회 항공 ₩899,000~  
7/25, 7/30, 8/02, 8/06, 8/10, 8/14, 8/17 출발

무안+장사(장가게)직항  
매주 일, 목 8회 항공 ₩749,000~  
7/24, 7/27, 7/31 ~ 8/10, 8/14, 8/17 출발

한국여행사, 헤리티지, 헤리티지 모바일 사이트, 헤리티지 모바일 앱  
www.hnhdhc.co.kr  
NAVER

한국여행사 헤리티지 모바일 사이트  
www.hnhdhc.co.kr  
NAVER